

국내 실리콘산업“흔들”

3대 메이커 합작사와 불협화음 … 중소기업 기술투자 꾸준

국내 실리콘 산업은 여전히 불투명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럭키DC, 한국신에츠, 동양실리콘 등 3대 실리콘 메이커는 합작파트너와의 불협화음으로 원활한 사업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럭키DC는 83년 럭키와 Dow Corning이 50:50으로 합작하여 실리콘제조기업을 설립했으나 럭키가 여전히 기술이전을 받지 못한채 최근에는 지분비율이 90:10 정도로 Dow Corning측에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실리콘 시장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92		1993			비 고
	금 액	M/S	금 액	M/S	증감률	
럭 키 D C	440	40	500	40	13.6	럭키 50%, Dow Corning 50%
동양실리콘	187	17	200	16	7.0	동양화학 50%, GE 30%, Toshiba 20%
한국신에츠	220	20	250	20	13.6	삼성물산 50%, 신에츠 50%
고 려 화 학	110	10	150	12	36.4	Wacker와 기술도입 추진 중
W a c k e r	143	13	150	12	4.9	-
B a y e r						
R/P 등						
합 계	1,110	100	1,250	100	13.6	-

한국신에츠는 삼성물산과 일본의 신에츠가 86년에 50:50으로 합작설립한 기업인데 최근에는 삼성물 산측이 단순한 지분만을 보유한채 거의 발을 빼고 있는 상태다.

동양실리콘은 GE와 도시바의 기술관계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국내에서 시장성을 갖고 있는 제 품은 도시바제품의 Grade이기 때문에 GE와 도시바간에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실란트 사업에만 뛰어들고 있는 고려화학은 본격적으로 실리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Wacker와 기술도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나 채산성 등의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실리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 단위는 시장규모가 10만톤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의 시장규모로는 Wacker가 아직까지 선뜻 뛰어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수준인 해룡과 대동상사는 꾸준한 기술투자로 기술수준에서는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룡은 동남아시아시장으로 수출선을 확보하여 매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밖에 UCC의 실리콘사업을 인수한 OSi스페셜티즈코리아에서는 전자재 분야에 활발한 용도 개발을 하고 있다.

향후 국내의 실리콘사업은 대기업의 기술개발 의지가 없이는 외국의 제품을 Repack-king하는 상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또한 국내에서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계획은 동남아지역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무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